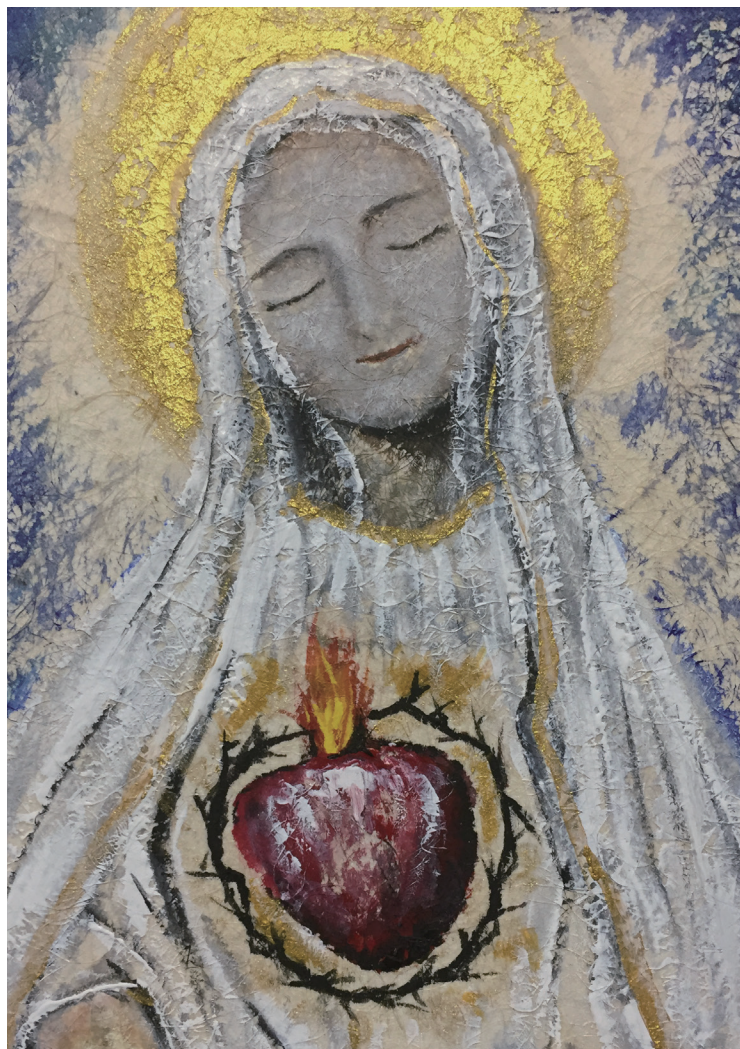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8

# 성모기사

06



## 6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예수 성심의 사랑 속에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                                |    |
|--------------------------------|----|
| 6월을 시작하며<br>김용기                | 02 |
| 생명의 나무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br>한규희   | 06 |
| 프란치스칸 영성 - 순명<br>반홍철           | 09 |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br>구원모             | 16 |
| 만남<br>박영철                      | 21 |
| 말씀묵상<br>최창원                    | 22 |
| 애원<br>김종국                      | 24 |
| 인도가 인도하는 대로...<br>신재희          | 26 |
|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br>권정대 | 35 |
| 나의 성소 이야기<br>김민석               | 42 |
| 장차 올 평화 왕국<br>김연희              | 47 |
| 빌라도의 천국<br>김인주                 | 52 |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되리이다.”

(사편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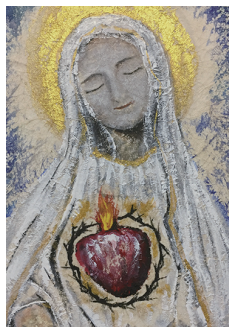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 6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대간안드레아

신학생 시절에 어느 원로 교수신부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신부님께서 신학생이던 시절(그 신부님의 서품 연도를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1960년 전후쯤이 아닐까 합니다) 대신학교 대성당 입구 벽면에는 예수님의 성심을 상징하는, 천으로 만들어진 보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핀이 담겨 있는 바구니가 있었답니다. 신학생들은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성찰하고, 죄의 횡수만큼 핀을 (예수 성심을 상징하는) 보에 꽂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규정된 핀이 아닌) 아주 큰 바늘 하나가 보에 꽂혀 있었고, 그 때문에 신학교가 발각 뒤집혔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독성의 죄라며 그 바늘을 꽂은 학생을 찾아서 징계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수님께서 아마도 그 신학생은 자기 죄를 너무나 크게 느낀 나머지 그렇게 큰 바늘을 가져다가 꽂은 것이니, 오히려 더 양심성찰을 잘한 것이라고 두둔해 주셔서 별 일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해 주신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얼마나 큰 바늘, 아니 못이나 말뚝을 주님의 성심에 박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문 6처에서도 우리의 죄가 주님을 모욕하고 그분의 얼굴을 더럽혀드리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때로는 그분의 자비를 악용하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도 그 죄를 깊이 아파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되풀이하는 자신을 봅니다.

예수 성심상이나 예수님의 성심을 표현한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수난받으신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보고 배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신의 온유함과 겸손(마태 11, 29), 그리고 열렬한 사랑이야말로 성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죄에 떨어지는 것은 그 순간에는 제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죄송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에 떨어지는 것은 결국 제가 그분

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제가 보고 싶은 방향 혹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스러움을 아는 영혼에게 수난받고 계신 십자가 위의 예수님과, 그분의 피 흘리는 성심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다시 교만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루카복음 18장에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당하게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바리사이와 달리,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스러움을 인식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의롭게 되어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가 아닌 세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와 상처받은 성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아파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성심 성월인 6월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상처받으신 성심과 그 안에 넘쳐흐르는 사랑을 묵상해봅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이 성체 성혈 대축일 후의 금요

일에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분의 수난과 희생이 2천 년 전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체성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고,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미사성제의 성찬례는 예수 성심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기에 가장 큰 기도이고, 전례의 중심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 안에서 성심의 사랑을 배우라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유기농이나, 보다 자연적인 것을 섭취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정성껏 받아 모실 때, 성체와 성혈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의 성심에 닮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성체를 합당하게 모시고, 예수 성심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성심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성체의 신비 안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예수성심성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 생명의 나무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규희 보나벤투라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 신앙에 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는 곳이고 또한 하느님을 부정하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느님을 거부하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형틀이라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부정하고 싶은 그곳에서도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십자가에도 와 있다, 하느님의 생명이 이 죽음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십자가를 마음속에 떠올려 봅시다. 그곳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땀과 피로 얼룩져진 창백한 얼굴, 다가오는 죽음에 감기려는 눈, 셀 수 있을 정도로 확연히 드러난 늑골들을 바라봅시다. 죽음에 이르러 거칠어지는 숨소리를 들으며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바라봅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그루의 나무로 생각해 봅시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이 그 나무의 뿌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 샘이 흘러 거대한 생명의 강을 이루고 그 강은 다시 네 갈래로 갈라져 흘러내려 '교회'라는 정원을 골고루 적시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둥치로부터 열두 개의 가지들이 뻗어 나와 있습니다. 이 잎들은 모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큰 효험이 있는 약입니다.

또 이 꽃들은 오색 영롱한 광채를 띠고 빛나고 있으며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일깨워주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가지에 달린 열두 개의 열매는 하느님의 종인 우리가 영원히 먹고 배부르지만, 결코 물리지 않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십자가 나무 위에서 영원한 태양이 내뿜는 한낮의 열기,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무르익어 기쁘게 성숙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생명의 나무가 맺는 열두 가지의 열매들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주시고 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생명의 나무”에서 예수님이 맺으신 열두 개의 열매를 탄생과 죽음(수난), 부활(영광)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음 달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란치스칸 영성 - 순명

반홍철 토마스 모어

## 장상의 역할과 순명

프란치스코에 있어서 순명이라는 개념은 위사람이나 아랫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를 포함한다. 모두 다 ‘주님의 정신으로’ 이끌려 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곧 상대방에 대한 순명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프란치스코의 글(인준 받지 않은 회칙 4-5장) 안에서도 알아 볼 수 있다. 즉 그는 장상직을 위임받은 형제들이 ‘봉사자와 종(Minister et Servus)’으로 호칭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장상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각 형제 안에서 성령의 길을 발견한 후 형제가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각 형제는 장상에게 순명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확실한 표를 발견한다. 따라서 형제들의 봉사자이며 종으로서의 장상은 형제들을 방문하여 권고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훈계할 것이며 그들의 영혼과 회칙에 반대되는 것을 명하지 말아야 한다.

프란치스코에 의하면 양심과 회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무것도 명할 수가 없다. 곧 ‘거룩한 순명’이라야 하는 것이며, 이 또한 장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순명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이 인간 생활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기에 순명이라는 구실로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장상은 순명으로 요구하는 일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상은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과 친절로 맞이할 것이며, 주인이 하인을 대하는 것처럼 형제들이 자신 곧 장상을 대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애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즉, 모든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각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한다. 또한 어떤 형제의 죄 때문에 그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온갖 인내와 겸손을 다하여 너그럽게 훈계하고 부축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므로 장상은 섬기는 사람들이며 아래 형제들에게 상냥해야 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관습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호감을 사려고 은혜를 베풀지 말며, 권리를 행사하기보다

는 직무를 수행할 생각만 해야 한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장상은 직무를 형제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상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반대로 수도자의 순명이 위대하고 거룩한 만큼 장상의 직분은 더 무겁다. 장상은 순명을 자기 개인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에 이용해서는 안 되며 그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느님 뜻과 일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장상은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형제들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기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 **아랫사람의 순명**

프란치스칸 순명은 장상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다. 그와 반대로 형제는 그가 올바른 지향에 따라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순명 안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성령의 활동에 순응하여 책임감 있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섬기는 길을 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거룩한 순명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순명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하여 있고, 능동적으로 그분의 뜻에 맞추어 기쁘게 섬기는 것이 프란치스칸 순명이라 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장상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일이라고 본인 자신이 알고, 또한 그 일 자체도 선이라면,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 모두가 참된 순명이 됩니다.”(권고 3,4)

이것은 능동적인 순명의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나타낸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각자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일이라면) 순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에 순응하여 하느님과 형제들을 책임감 있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장상이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 즉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배제할 때 형제들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고 내세울 수 있다.

장상이 양심과 회칙에 반대되는 것, 즉 하느님의 뜻에 거스르는 어떠한 것을 명할 때나 혹은 어떤 형제가 장상 때문에 혹은 외적·내적으로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 영적·육적으로 회칙을 지킬 수 없고,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아래 형제의 정당한 저항은 보장되어 있다.

이는 복음적 생활의 이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책임은 형제들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순명의 핑계로 인해서 수도생활의 주체가 하느님과 각 형제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도 이야기 한다. “아랫사람의 눈에 장상이 멍하는 것보다 자기 영혼에게 더 좋고 더 유익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때라도, 자진해서 자기의 것을 하느님께 희생할 것이며 장상의 뜻을 실천에 옮기도록 힘쓸 것입니다.”(권고 3,5)

이것은 하느님의 뜻에 진실로 합당하지 않거나 교의에 어긋나는 행위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자신의 생각이 더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장상의 뜻을 따를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는 자칫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제들의 주체적인 권리를 겸손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명이라는 것은 첫째로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장상이 그의 영혼에 거스르는 어떤 것을 아랫사람에게 명한다면, 순명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장상의 결을 떠나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sup>1</sup> 순명은 하느님과 이웃을 흠족케 하는 것이기에 사랑의 순명이어야 하

며, 만약 이 때문에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느님 때문에 그들을 더 사랑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 간의 순명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형제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영적 사랑은 작음과 순명을 함께 묶어, 형제적 공동체라는 더 높은 가치관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형제적 공동체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게까지 열려 있고 포용하고 있으므로 하느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앞에서 순명적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sup>2</sup> 그 결과로 그는 모든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 순명하고,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 것 없는 종과 같이 드러내고 그들에게 양순함을 보이기를 원하였다.

## 순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다른 이에게 순명하면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

주1) 장상이 그의 영혼에 거스르는 어떤 것을 아랫사람에게 명한다면 순명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상을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의 순명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함을 볼 수 있다. (권고 3.7)

주2) 프란치스코는 어느 피조물에게나 순명하는 종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이 말을 한 것은 모든 피조물에서 하느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왜 순명하기 어려운가?

우선 많은 사람이 애덕으로 순명하기 보다는 억지로 순명하기 때문이다. 즉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굴복시켜 순명하기 전에는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순명이 그릇된 자유개념에서 잘못 사용되어 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지만 이는 인간의 근본선인 자유를 그것이 진리와 윤리규범과 가지는 본질적인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과 민족들이 당하는 불의와 폭력 등 자유의 남용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결과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자유의 신비가 성부의 뜻에 순명하는 길임을, 그리고 순명의 신비가 점진적으로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몸소 보여주셨다.

수도자들이 이 독특한 순명 서원을 통하여 천명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비이다. 그들은 순명을 통하여 자신이 성부의 자녀들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13세기에 아시시에서 시작된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많은 성인·성녀가 수도회를 통해 배출됨으로써 나태와 향락의 분위기가 만연했던 당시 사회에 참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성인을 꼽자면 6월 13일에 축일을 기념하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가 꼭 들어갑니다.

성인은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귀족 집안에서 탄생했습니다. 15세에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1219년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1220년 1월 12일 모로코에서 순교한 다섯 명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순교자들의 유해가 옮겨오는 것을 보고, 순교자가 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들어가 안토니오라는 수도명을 받고 곧바로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이슬람국가에서 타 종교를 권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인에게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모로코에 도착한 직후 병에 걸려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포를리 근처의 몬테파올로에서 영적 생활과 수련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제 서품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포를리로 갔는데, 강론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 안토니오 성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채 성경의 깊은 의미를 해박한 지식과 차원 높은 교리지식을 곁들여 거침없이 설명하는 그를 보고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이후 성인은 유명 설교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설교는 불과 같았고 설득력이 있어 모여든 군중을 매료시켰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군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1226년 이후부터는 파도바에 정착하여 파도바 전체를 개종시켰습니다. 당시 많은 이단자를 회개시켰던 안토니오는 ‘이단자들을 부수는 망치’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231년 열병에 걸린 안토니오 성인은 캄포 산 피에로에서 요양을 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파도바로 옮겨지던 중

베로나의 클라라 수녀회에서 6월 13일 36세의 나이로 선종하였습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 파도바에 있는 성 안토니오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선종 다음 해에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1946년에는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교회박사로 선언되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성인의 타고난 성경 주석 능력에 탄복하여 ‘신약의 방주(Doctor Arca testamenti)’라 불렀습니다.

성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여럿 있습니다.

“행동이 뒤따를 때 입으로 하는 말은 효과가 있습니다. 입은 다물고 행동으로 말합시다. 우리는 불행히도 말로는 부풀어 있고 행동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도록 합시다. 당신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성령께 겸손히 또 열렬히 청합니다.”

“예리한 통회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혀 같은 불길을 우리 마음에 주시어, 성도들의 광채로 불타오르고 조명되는 가운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성인을 통해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도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물고기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성인께서 리미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인은 차라리 물고기들이 더 낫겠다고 하시며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물고기가 모여들어 이상스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도 있었으며 제각기 다른 형태로 주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를 본 모든 이가 회두하여 충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잃어버린 사람이나 물건을 찾을 때 안토니오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는데, 그 유래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볼로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려고 쓴 원고들과 주석이 포함된 시편집 한 권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수련자가 허락 없이 성인의 시편집을 가져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시편집이 없어진 것을 알고 하루속히 시편집을 발견하거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수련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시편집을 안토니오 성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인 앞의 모금함에 가장 많은 희사가 있는 것을 보면 성인께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아주시는 듯합니다.

성인 사후에 일어난 기적도 있습니다. 1263년 성인이 묻힌 자리에 성당이 세워지면서 당시 총장인 성 보나벤투라 주도하에 유해 이장이 이뤄졌습니다. 이 때 유해가 공개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허만이 썩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볼로냐의 귀도 추기경이 유해를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도 허는 여전히 썩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를 따로 꺼내어 성유물 상자에 보관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본받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어머니, 원죄 없으신 성모님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언약의 궤이며 성경의 보고이다.”

# 만남

박영철 요셉

6월의 푸르름 속에  
우리는 한형제, 한자매로  
자연 속에서 만났지요.

처음 맞이하는 얼굴  
친숙한 얼굴도 있지만  
왠지 서먹서먹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  
나를 버리고, 비우고,  
또 다른 새 정수 밖으로  
샘물을 떠 담아야 했지요.

서로의 대화 속에  
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를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만남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됨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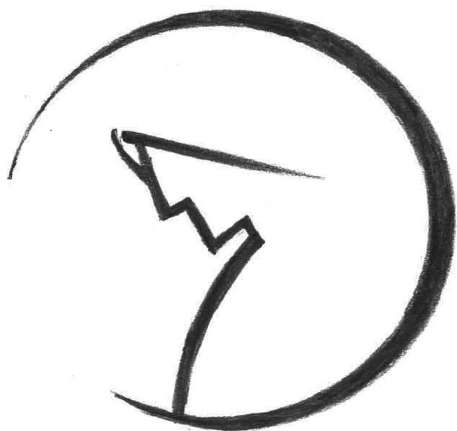
곤베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

#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예수 성심 대축일 영성체송)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성모 성심 기념일 입당송)

## 애원

김종국 요셉

빛이신 주님이시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캄캄한 밤 산허리에서 하늘을 가르는  
고통의 외마디 소리를 들으시려 가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통곡을 들으시고 찾아 가시는 곳을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게 오셔서 제 말을 조금만이라도 귀 기울이어 들어주세요.

이 조그마한 소망마저 다 무너져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한없이 부르짖다 손톱에 핏기어진,  
눈물 젖은 벽 종이는 만신창이 제 심장입니다.

외톨이 아낙네와 젖먹이 어린아이들 전쟁으로 인한 불행은  
더는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슬픔과 고통이 필요하시다면 제발 제게 주십시오.

저의 죄 탓으로 어둠의 장막을 몇 달이 지나야 걷어주신다면  
당신을 향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고통이 끝날 그때가 세상을 떠날 그날이라면  
차라리 고통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찾아 가시는 곳이 불 속이더라도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가시는 그 길이 모래바람 휘몰아치는 항무지 자갈길이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양식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병으로 절망 속에 빠진 이에게 치유를  
미움이 쌓인 다툼의 현장에 화해를  
고독에 지친 독거노인에게 돌봄을  
슬픔에 싸여 통곡하는 이에게 위로를  
전쟁의 현장에 평화를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안내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하도록 허락해주세요.

아멘

## 인도가 인도하는 대로...

신재희 베드로

제 이야기는 스리랑카에서 인도로, 그것도 더 깊은 인도 속으로 들어가 보는 여정으로 돌아갑니다. 인도에서의 삶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 사건이 6월에 있었습니다. 더욱 더 인도라는 나라에 들어가 그 모습을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달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도가 인도하는 대로 떠난 여행에 점차 적응될 때쯤에는 북인도 히말라야산맥 품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 높이 솟은 고산지대에서는 심한 두통으로 괴롭기도 하였지만, 광활한 자연 안에서 그리고 무수한 별빛 아래서 피조물로서 찬미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델리 한인 성당 본당 신부님 이신 박병석 요셉 신부님과 한인 성당 신자들에게 이 글을 통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북인도를 향하면서 남인도와는 상황이 다른 또 다른 인도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때론 마음 아프고 때론 아름답기도 한 그 여정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마움을 담아 성모기사지를 보내고 있으니, 이 글을 읽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먼 타국에 계신 우리 교민들

과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마움을 전합니다. 인도에서 만난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 돌부리, ‘쉽’ 그리고 ‘떠남’

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인도관구의 전체 모임이 있던 날, 그 날은 학생 공동체 형제들도 함께 모여 전체 모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소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시간 형제들이 함께 모여 배구를 하기로 하였다. 한참 신나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편이 받은 공을 무리하게 쫓아가 받으려다가 돌부리에 엄지발가락을 접질리고 말았다.

넘어지고 다치고 자주 그랬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엄지발가락이 돌부리에 걸릴 때 ‘뺨’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일단은 침착한 처신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상처에 피가 나자 함께 운동하던 형제들이 당황하면서 급하게 수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다. 인도에 와서 처음으로 병원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기까지 하였는데, 수도원에 돌아와서는 밤새 통증을 느껴 다음날 간호사 출신의 자이스 수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한번 병원에 가라고 하였다. ‘리틀 플라워’라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엄지발가락에 금이 가 있었다. 결국 깎스를 하고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끼니마다 형제들이 가져다주는 식사를 하고, 미사 때에는 신부님과 초를 든 복사가 내 방으로 찾아와 영성체를 했다. 그렇게 한 달을 방 안에서 생활하면서 호화로운 대접(?)을 받고, ‘피곤하다’라는 느낌을 잊어버릴 정도로 쉬게 되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 이제껏 맛보지 못한 ‘쉽’으로 다가온 것이다.

쉬는 동안 나름대로 재미난 일도 많았다. 김스한 첫 주에는 땀이 나서 너무 가려운 나머지 새벽녘에 깨어나 손톱깎이로 김스를 잘라버렸다. 그 바람에 고정되지 않는 발가락을 움켜잡고 밤새 괴로워하다가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가서 간호사 수녀님께 된통 혼나고 치료한 부위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돌아오게 되었다.

또 혼자 킁킁 웃으며 재미난 자세로 빨래한 기억이 난다. 인도에 와서는 손빨래를 해왔던 터라 다치고 나서 애를 먹었는데, 몇 번의 실패 끝에 목욕과 빨래를 동시에 하는 묘안을 생각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3주의 시간이 흘러 생전 처음 수영 기른 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덩수룩해진 수영이 생각 외로 잘 어울려 형제들은 엄지를 치켜들었다.

어느 날은 수련 전기에 들어간 진더쉬 형제가 내 방을 방문하였다. 반가운 마음에 한 발로 꺾충꺾충 다가가 포옹을 하고 어떤 일로 왔냐고 물으니, 함께 온 흰 수염을 기르신 도인 같은 할아버지 수사 신부님을 내게 소개했다. 수사님께서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해주셨는데, 기도 소리를 잘 들어보니 일본어였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내시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셨기에, 이웃 나라라서 내가 알아들을 줄 알고 일본어로 기도를 해주신 것이다. 수사님의 치유기도와 함께 진더쉬 형제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형제들이 없었다면 외로웠을 그 시간을 소중히 기억한다. 나를 위해 봉사해주는 모습에 감동하였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친가족인 것처럼 나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식사시간 외에도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나에게 간식과 차를 가져다주었기에, 인도의 왕자(?)가 된 기분이었다. 엄지발가락을 접질렸을 뿐인데 이런 호강을 다 누리다니...

그렇게 한 달 동안 촛불을 비추고 복사를 앞장서 내게 오시는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내 방으로(내 마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처럼 앞으로 더욱 인도 안으로 들어가 보리라 다짐했다. 그래서 누워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묵상했다. 어떻게 하면 인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 역시 하느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수도생활의 여정이지만,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에 남은 일정 동안 인도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인도 속의 인도를 보기 위해 떠나기로 마음먹고 매달 올리는 보고서와 함께 허락을 청했다.

## 인도 북부로

마침내 인도 북부 여행에 대한 허락이 떨어졌다. 인도 관구장님께도 북인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다. 여행의 거점을 인도의 수도 뉴델리로 정하고, 계획을 짰다. 계획을 짜면서 인천교구가 진출해 있는 뉴델리 한인 성당 신부님께 전화를 거니 흔쾌히 초대를 해주셨다. 인도관구의 수사님들께서 비행기 표를 예매해주려 하였지만, 기차를 타고 가도 되겠냐고 말씀드렸다. 비행기면 반나절이면 가는 그 길을 기차로 가면 3일이 걸린다고 하였지만, “예, 기차로 가고 싶습니다”라 말씀드렸다.

관구본부에 있는 형제 중에도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 다녀와 본 형제가 많지 않았다. 자기가 사는 곳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은 인도사람들에게는 외국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도는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종교와 문화까지도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부와 비교해서 북부는 다종교, 다언어, 다민족, 다문화 성향이 뚜렷하다.

드디어 인도 북부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수첩을 챙기고 형제들의 격려를 받으며 수도원에서 한 시간 정도를 차로 달려 ‘아로바’역으로 향했다. 세 명의 수사님께서 배웅을 해주셨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아로바’역에 도착하자 그 사이에 언제 다녀오셨는지 알프레드 수사님이 신문지에 싸인 과자를 내미셨다. 샤이쥬 수사님은 기차에 함께 올라타서 지정된 자리까지 찾아준 뒤에야 기차에서 내리셨다. 작별인사를 마치고 기차가 출발했다.

찬찬히 기차 안을 살펴보니 구조가 재미있게 되어 있었다. 1층 침대칸은 평상시에는 의자로 앉아서 가고 잘 때가 되면 개조를 하여 침대로 만드는 식이었다. 내 자리는 3층 간이침대로,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겨우 몸을 누울 수 있는 잠자리였지만 마치 요람처럼 편안하게 느껴졌고 잠도 잘 왔다. 다리를 쭉 펼 수도 없는 불편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편한 것을 찾고서 불평을 하고, 불편한 곳에서 편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차이와 같다.’

달리는 기차를 따라 인도의 또 다른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차는 빈자리가 없이 꽉 찼다. 내가 보기에 분명 세 사람이 앉아서 갈 의자인데 너도나도 엉덩이를

들이밀어 심지어 7명이 앉아 있는 의자도 있었다. 이렇게 기차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

기차가 정차하자 많은 상인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짜이(차), 커피”, “비리야니(biryani · 생쌀에 고기, 생선 또는 계란, 채소를 넣어서 찐 인도요리), 치킨 비리야니”라며 차와 음식을 팔았다. 배가 고플 찰나 짜이 한잔에 치킨 비리야니를 사서 맛있게 먹고 열차와 열차를 이어주는 중간 칸에서 달리는 기차의 바람을 느끼고 풍경도 구경하면서 점차 방랑객이 되어 갔다.

## 인도의 그림자

기차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정차하는 곳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구걸하는 이들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앳된 소녀들이었다. 그들이 손을 내밀며 돈을 요구할 때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몽땅 다 내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인도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에 관한 지침서에 돈을 청하는 아이들, 장애인들, 구걸하는 이들에게 직접 돈을 주지 말라는 경고를 넣었다. 돈을 구걸하기 위한 악순환으로 멸절한 아이의 눈을 봉사로 만들거나 장애인으로 만들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



을 이용해 아기를 유괴하기까지 하며, 그들이 구걸한 돈은 그곳을 관리하는 힘센 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기를 안고 푹망한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소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내 머리 속에서 그 지침은 사라져버렸다.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승객들도 애궁을 청하며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10루피씩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여행비가 다 떨어지겠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5루피씩 1루피씩 동전을 주게 되었는데, 잔돈을 받은 이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돌아갔다. 그들은 ‘외국인은 10루피 이상은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려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구걸하는 이들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했지만, 걸인들로 넘쳐나는 인도의 수도에 도착했을 때는 나도 나름대로 거지꼴이 되어있었다. 기차 안의 2박 3일을 통해 찌죄죄한 물골로 바뀌니, 그때부터 나에게 다가와 구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또한 바닥이나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으면 더 이상 내게는 구걸을 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에 슬리퍼는 이미 어디 가고 없었다. ‘필요한 누군가가 가져갔겠지’라 마음을 다잡으며, 맨발로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도착하였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뉴델리’역이었지만 워낙 많은 기차가 밀집되기 때문에 그 전 역인 ‘니자무딘’역까지만 운행이 되었다.

그곳에 내렸을 때, 무자비한 소음과 혼돈이 날 덮쳤다. 이에 비하면 3일간의 기차여행은 고요와도 같았다. 하지만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시끄럽게 울려대는 경적소리와 호객꾼들과 구걸하는 이들 사이에서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는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

‘아, 내가 드디어 인도로 들어가는구나.’

#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권정대 베드로

T. 주 하느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천구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흘러넘치길 희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수도회로부터 유학을 명받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부하며 생활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성모기사회 담당 수사님의 요청에 따라,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저의 유학생 생활 이야기를 기사지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돌보아주시어 저의 삶을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 엮어나갈 수 있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 또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는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 권정대 베드로 수사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발자취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여기 계신 형제들 앞에서  
관구장의 손안에서 굳은 믿음과 원의로써,

한평생 순종하며, 소유 없이,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서원합니다.  
또한 교황 호노리오께서 인준한  
작은 형제들의 삶과 회칙을  
끈벰없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회헌에 따라  
성실하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의 활동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모범과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를 비롯한  
모든 성인의 전구와 형제들의 도움으로  
하느님과 교회와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이 형제회에 저를 내맡깁니다.

2015년 2월, 종신서원을 통해 저는 ‘과연 하느님께 부르  
심을 받았는가?’, ‘부족한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느님  
께 바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일인가?’하는 질문에 좋지  
부를 찍었습니다.

종신서원을 하고도 부족하고, 하느님께 봉헌된 삶에 완  
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은 하느님께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써 쓰시고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님의 활동하심과 성모님의 모

범, 성인·성녀들의 전구와 형제들, 수많은 은인 분들의 기도와 도움 덕분에 오늘도 수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모든 도움에 힘입어 저는 제 일생을 축성 생활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노라 하느님과 약속했고, 그를 통해 제 삶이 전적인 주님의 은총에 내어 맡겨져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 8,28)

글을 쓰면서 문득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진정 수도생활로 불림을 받은 저 자신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 손에 내어 맡겨져 있습니다.

제 존재가 하느님 보시기에 부족하든 충만하든 그분의 은총으로 점철(點綴) 되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도생활의 모든 순간을 하느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분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수도자로서의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해봅니다.

종신서원 이후, 신학교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고, 부제서품을 앞두고 있는 신학교의 가장 실세(?) 학년인 대학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대학원생들의 가장 큰 과업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사제직을 잘 준비하는 것과 대학원생으로서 논문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라 회상해 봅니다.

성모님의 전구와 많은 분의 도움으로 논문을 완성하고, 대학원을 마친 후 부제서품을 앞둔 무렵, 청천벽력(靑天霹靂)과도 같은 소식을 신학원장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학업이 끝나고 주님을 위해 활동할 수 있으리라 싶었는데, 유학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은 눈앞을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공부에 관한 달란트는 받지 않았더 여겨지기에, 신학교 입학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 온 터라 앞일에 대한 걱정으로 막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신학원장님께 곧바로 “예, 가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원장님과의 면담 후, 곧바로 강화 신학원에 있는 정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홀로 붉은 빛과 함께 감실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윽고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 회개 생활을 시작하실 때 드리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바로 앉아 어떻게 하면 될지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며 그분께 간청드렸습니다. 그때만큼 간절히 하느님께 앞으로의 일에 대한 답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청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바라신다면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라는 영혼의 외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수사님에게 조언을 청해들은 후 유학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하고, 용기를 내어 신학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다녀오겠습니다.”

한 수사님께 조언을 청했을 때 제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네가 유학에 가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네게 돌을 던질 형제들은 아무도 없단다.” 조언을 듣고 유학을 가겠다는 결심을 가지자 수사님께서는 “베드로, 사실 네 뜻과 상관없이 유학은 결정되었고, 넌 유학을 가야만 했단다”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타지에서 겪을 어려움, 갖은 고생에 대한 인간적인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로마 유학 생활은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요 선물이자, 수도자로서의 삶을 가꾸고 다져나가는 커다란 자양분으로 작용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공부하다’란 뜻의 유학(遊學)에서 유자가 놀 유(遊)자라는 한 수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놀 유(遊)자에는 ‘논다’라는 동사와 함께 ‘즐겁게 지내다, 여행하다, 취학하다, 나아가다, 사귀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유학(留學)생활 동안 하느님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보다 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서 지내게 될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또 더 많은 이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프란치스칸답게 사귀고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유학생활을 통해 제게 바라시는 일이라 여겨지며, 저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께 부족한 저를 내맡깁니다.

# 나의 성소 이야기

김민석 안젤로

오늘 여러분께 성소에 관련된 한 이야기를 헤드릴까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생활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끈벰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딱 한 학기를 살고서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더 이상 수도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여름방학 첫 파견지인 일광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고, 마음을 붙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청거렸습니다.

파견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만 지났을 때, 그는 거의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수도성소는 나의 성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매일 같이 전화기 앞에서 아는 신부님과 수사님들께 전화를 걸어 성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에게까지 전화해서 이제 곧 수도원을 나가게 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틈만 나면 전화기만 붙들고 산 탓에,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오던 수도원 전화비가 20만원 가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강화도 신학원장님과 마지막 면담을 위해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는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습니다. 해 질 무렵 강화도 신학원에 도착한 그는 다음 날 아침 원장님과의 면담을 기다리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도원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그 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신학원장님께 자신의 심정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도원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으신 신학원장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페르시아 왕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왕자가 하루는 전 재산과 자신의 모든 신하를 이끌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진정한 종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땅에 흘리면서 나아갔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금·은·보석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종들은 그 보물을 주머니에 주워 담더니, 하나 둘 그 보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왕의 행렬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왕자가 뒤돌아봤을 때, 그의 뒤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종에게 물

었습니다. “너는 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러 가지 않았느냐?” 그때 이 종은 “저는 왕자님의 종으로 평생 살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 뒤를 따라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 종은 왕자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신학원장님께서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성소가 있어서 수도원에 왔는데, 왜 그 성소를 키워나가지 못합니까? 성소를 주신 분은 하느님 이시지만, 키워나가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잡생각 하지 말고, 얼른 나가서 마당에 잡초나 뽑으세요!”

청년은 원장신부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가 열심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한여름 따가운 햇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무엇이 땀이고 무엇이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무더웠던 그 날, 잡초를 뽑던 그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것’이 싹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서, 조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곧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작은 기쁨’이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기

뿔이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렇게 땀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를 뽑은 이후로는 수도원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의 이야기인지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저 김민석 안젤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휘청이며 수도생활을 시작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관구 모든 수사님의 기도와 관심으로 지난 2월 9일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

종신서원 때의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수도생활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제게 관심 가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받아주신 수사님들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에 대한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도회 신학생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 성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저희를 돌봐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1년 2월에 입회하여 수도생활을 시작하여 인천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으며, 특별히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먼 인도라는 나라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수도생활하기’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덕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수도회 신학생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도회 신학생들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며,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수도생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장차 올 평화 왕국

이연희 플로렌스

페로제도의 수도 토르사브에는 내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장소가 하나 있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귀여운 나무다 리들이 걸쳐져 있는 기다란 강과 넓은 동산이 그곳이다. 이곳에는 (페로제도의 뜻이 ‘양들의 섬’이듯) 양들이 뛰노는 건 당연하고 땅 주인이 풀어놓은 닭과 거위, 야생 오리나 야생 새가 찾아와 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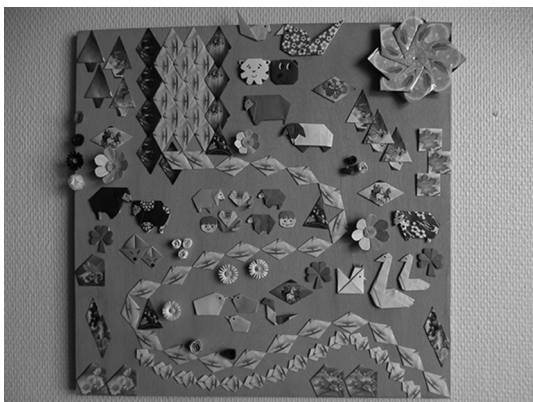
이를 보면 이사야서 11장의 한 대목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어릴 적 시골 교회에서 배운 노래 한 구절이 저절로 흥얼거려진다. “사자들이 어린양과 뛰놀고, 어린 이들 함께 뒹구는…” 성경을 펼쳐보니 한국어로는 위의 제목이고, 불어 번역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 ‘Le paradis retrouvé’ 직역하면 다시 찾은 천국이라는 뜻이다.

이 동산을 보며 성경 속 에덴동산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여름 한국방문 때 홍천 기도의 집에서 함께 지낸 동기 수녀와의 만남 중에 받은 에덴동산에 대한 영감은 (취미인) 종이접기를 이용하여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은 갈망에 불을 지폈다. 그래서 페로제도로 돌아온 후 양부터 생각나는 동물, 에덴동산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차 봉투나 다른 종이들로 접기 시작했다.

유리 액자 작품을 생각하다가 작년 성탄에 유치원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들을 아이들과 준비하던 중 큼직한 네모의 나무판을 발견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재료라 생각하고, 수도원 일을 도와 주는 아저씨께 이 판에 걸 수 있는 고리를 달아 달라 부탁하였다. 성탄방학 중에 연한 초록으로 물들여 놓으니 제법 훌륭한 캔버스가 되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작품은 대충 윤곽만 잡아놓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갑작스레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곤 한다. 영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야훼이레”말씀의 신비를 체험하곤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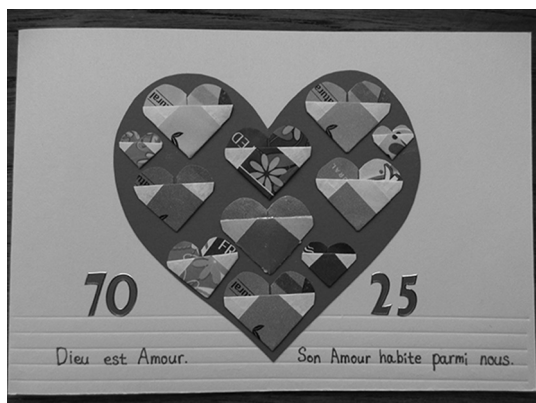


어느 정도 종이 작품들이 모여서, 1월 말쯤 이들을 나무 판 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생명의 근원인 폭포를 동산 한가운데 굽이져 흐르게 하고, 동물, 꽃, 나무, 새 등의 자리를 찾을 때는 뭐랄까 창조한 모든 생명의 존재들에게 알맞은 자리를 마련하시는 창조주의 그 위대한 업적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고 할까. 그런 감정이 들었다.

대충 첫 손질 후 작품을 벽에 걸고 매일 들여다보며 다시 영감을 받고, 새로운 손질을 더 하고 했다. 페로제도의 국화, 여름꽃 등등 뜻밖의 영감이 많이 떠올랐다.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를 아이들과 만들다가 이 작품에도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 아주 작게 접기도 하고, 또 망설이던 여자, 남자아이의 얼굴도 만들었다.

그러는 차에 책임자 수녀님께서 올해 수도서원 70주년(6월 13일)을 맞는 세실 수녀님과 25주년(4월 23일)을 맞는 나에게 관구의 각 공동체에 보내는 초대장에 사용할 성경 구절과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하셨다. 이에 금방 위의 말씀과 작품이 좋겠다 싶었다.

세실 수녀님께 작품을 보이며 설명하니 좋아하시면서 당신의 나라 아일랜드의 꽃인 Shamrock(녹색 세 잎 클로버와 유사)도 첨가하자고 하셨다. 즉시 Shamrock도 세 송이나 만들어 첨가한 것이 이 작품의 마지막 손질이 되었다.



이 기운을 모아 카드도 직접 만들고 위의 이미지와 이사가 11장 9절 말씀으로 초대장도 준비했다.

본당 주임사제 책임을 지닌 신부님이 계시는 날과 공동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5월 12일 토요일 11시 30분에 감사 미사를 드린 후 야외에서 식사하기로 했다. 위의 말씀과 작품도 미사 독서와 제대 앞 장식으로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하느님께 창조된 모든 존재가 창조 본래의 조화 안에서 가리는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 에덴동산, 천국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그리고 온 세상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찾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

을 봉헌하고 싶다.

이곳의 아름다운 동산을 밑그림으로 하고, 이사야서 11장 6-9절의 이미지를 위 그림으로 얹어 에덴동산의 맑은 삶의 속뜻을 품고 있는 이 작품을 계기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과 기쁨으로 알렐루야!를 노래하고 싶다.

# 빌라도의 천국

김인주 레지나

## ‘본시오 빌라도’

영세 준비로 처음 사도신경을 외울 때부터 ‘본시오 빌라도’가 기도문에 등장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 원수의 이름이 왜 하필 사도신경에 올라가 있을까?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하여 어느 성인도 주요 기도문에 등장하지 않는데, 발음도 힘든 ‘본시오 빌라도’를 왜 매일 입이 닳도록 읊어야 한단 말인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이름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소용돌이치며 욕이라도 해주고 싶건만 바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바람에 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억울할 따름이었다.

빌라도, 그는 누구인가? 시골 출신 군인으로 시저 황제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대총독으로 부임하였고, 그리 지혜롭지도 용감하지도 않아 ‘특별 관리 지역’이던 거센 유대의 땅을 다스릴 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몸을 사리던 사람으로 전해진다. 역사는 그가 성전기금으로 수로를 만들려다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수로 건설에 실패했다고 전하고, 예수님을 처형한 후 얼마 안 있어 사마

리아 지방에서 횡령으로 물의를 일으켜 10년 만에 총독지위를 박탈당하고 소환되었다 한다. 그러나 50권에 이르는 그의 ‘빌라도 보고서’는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전하고 있어 그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에는 본시오 빌라도가 18장 28절부터 38절에 이르는 무려 10절이나 되는 성경의 공간을 차지하며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독대하는 장면이 나온다. 요한복음사가의 탁월한 묘사 덕분에 나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숨 막히는 만남의 장면을 총독 관저의 커튼 뒤에서 다 엿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피고와 재판장의 신분으로 만난 하느님의 아들과 인간 빌라도, 두 사람은 마치 빛과 어둠이 대조되듯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리에 서 있다.

빌라도 :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요?

예수 : 네 입으로 말했다.

빌라도 :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 :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세웠다.

빌라도: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 : 침묵 (내가 진리다)

빌라도: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였소.

이 대화를 ‘심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의 깊게 보면 예수라는 ‘왕’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진리를 갈구하는 빌라도 내면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그의 질문은 재판관으로서의 어리석은 우문이었지만, 오히려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받아 낸 결정적이며 역사적인 질문이 되었다.

나는 다시 총독관저의 어두운 커튼 뒤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빌라도의 표정을 훑쳐본다. 처음에는 권력자의 거만한 표정이다가 두 번째는 ‘혹시?’ 하는 호기심의 표정으로, 세 번째는 진리를 애걸하는 간곡한 표정으로 바뀌고 있다. 마치 어두컴컴한 관저에 창문으로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의 표정이 밝아지며 잠시 천국의 평온함에 젖어드는 듯, 그의 눈이 아스라한 먼 곳을 보고 있다. 분명 그는 무엇인가를 보았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면, 빌라도는 바로 그 시간 천국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순간 얼굴만 봐어도 죽음에서 살아나고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분, 그 예수님과 단 둘이서 무려 성경의 한 페이지에 이르도록 함께하였는데, 아! 안타까운 빌라도의 천국은 잡힐듯하다가 미끄러져 버린다. 커튼 뒤에서 숨어 엿보는 나의 마음은 ‘빨리! 이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영혼을 구하여 주 십사고 청하라’고 빌라도를 재촉한다. ‘빌라도, 지금 그대

는 천국에 있지 않는가! 바로 눈앞에 그 분이 계시지 않는  
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옆에 달린 강도에게까지  
천국을 허락하신 분인데 그대가 청하면 왜 들어주시지 않  
을까! 지금이 타이밍인데! 어서!’

그러나 빌라도는 그 순간 세상의 저울을 선택하고 말았  
다. 정신병자 같은 남루한 차림의 예수가 외치는 천국은  
총독의 지위와 체면, 폭동분위기의 무게에 눌러 휘청대며  
기울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의 대가를 유대인들과 그 자  
손에게 돌릴 수 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을 씻었다.  
‘나는 살려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내 탓은  
아니야’하며. 그러나 그는 손안에 들어온 천국을 버린 것  
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빌라도는 퇴임 후 계속 예수를 잊지 못하였고 결국 자살  
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예수  
님을 만났던 순간의 그리움과 천국을 놓친 아쉬움이 가슴  
에 매 순간 대못으로 수없이 박히는 벌을 받고 있을까. 영  
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예수님과 단절되어 다시 만  
날 희망이 없이 절망의 암흑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곳  
이 아닐지…. 본시오 빌라도, 그 이름은 닫힌 천국의 문을  
긁으며 통곡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은 항상 나에게 세 가  
지 질문을 한다.

-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 그는 왜 이 세상에 오셨나?
- 진리란 무엇인가?

이제는 ‘본시오 빌라도’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결심하는 사도신경에 꼭 필요한 이름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그 이름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잘 보라고 경고한다. ‘지금 너의 이웃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와 함께 있는 바로 지금이 천국일 수 있다. 그러니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말라.’ 남은 세상을 살아가며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설 때마다 그가 놓치고만 ‘빌라도의 천국’은 내 선택의 방향을 다짐해 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 수도원 효소단식 피정



- 기 간 : 1차 6월 4- 6일  
2차 6월 19 -21일
- 장 소 : 양평 문호리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콜베마을)
- 문 의 : 최영선 수사 010-5385-2506 / 031-771-6134
- 선착순 10명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 프란치스칸 화요 신앙 특강

- **장 소** : 한남동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대강의실
- **강의 신청 접수 및 문의**  
한남동 수도원 안내실 02-793-2070  
(화요일은 휴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가능)
- **강의료 입금 계좌** : KEB하나은행 352-910019-52504  
천주교콘벤뚜알성프란치스코수도회  
(반드시 입금자를 수강자 본인 이름으로 해 주세요!)
- **강의료** : 7만원 (3주 강의)
- **강의는 선착순 50명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 일 시  | 강 의 주 제      | 강 사               | 비 고  |
|------|--------------|-------------------|------|
| 5/29 |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 | 한규희<br>(보나벤투라) 수사 |      |
| 6/5  |              |                   |      |
| 6/12 |              |                   | 종강미사 |



## 성모기사회 통장 정리를 합니다

관구법인 이름 통장 외 기존 개인이름 통장은 모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이체 회원 중에서 수사님 개인이름 통장(이태영, 박영철, 황광우)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02-745-613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끈벙뚝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 성소후원회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벗을 기다립니다.

###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2-932457

국 민 :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 해외 선교 후원회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  
실 벗을 기다립니다.

###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 민 : 295401-01-183491

#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 미사 안내

| 지 역 | 장 소     | 시 간      | 월모임  | 전 화          |
|-----|---------|----------|------|--------------|
| 대 구 | 월배 성당   | 오후 7:30  | 둘째 화 | 053-636-1302 |
| 부 산 | 대연동 성당  | 오전 10:30 | 둘째 수 | 051-622-0635 |
|     | 기장 성당   | 오후 7:30  | 둘째 수 | 051-721-2273 |
| 서 울 | 한남동 수도원 | 오전 10:30 | 셋째 월 | 02-793-2070  |
| 인 천 | 갈산동 성당  | 오전 10:00 | 셋째 토 | 032-513-4601 |

##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 지 역     | 월 모 임  | 시 간      | 장 소                 | 연 락            |
|---------|--------|----------|---------------------|----------------|
| 대 구     | 첫째 토요일 | 오전 10:30 |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 053-636-7427   |
|         | 셋째 토요일 | 오후 7:00  |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                |
|         | 넷째 주일  | 오후 2:00  |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                |
| 대 전     | 둘째 토요일 | 오전 10:00 | 대흥동 성당 (1층 정당)      | 042-256-6562   |
| 부 산     | 첫째 토요일 | 오전 10:30 | 기장 성당               | 051-721-2273   |
|         |        | 오전 11:00 | 대연동 성당              | 051-622-0635   |
|         | 첫째 주일  | 오후 12:00 |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 051-622-0656   |
| 부 천     | 셋째 토요일 | 오전 10:00 | 중1동 성당              | 032-325-0342   |
| 서 울     | 첫째 토요일 | 오전 10:30 | 한남동 수도원             | 02-793-2070    |
| 수원 · 안양 | 넷째 토요일 | 오전 10:00 | 매교동 성당              | 031-233-7185   |
| 양 평     | 첫째 토요일 | 오전 11:00 | 양평 수도원              | 031-771-6138   |
| 인 천     | 첫째 토요일 | 오전 10:00 | 갈산동 성당              | 032-513-4601   |
| 전 주     | 첫째 토요일 | 오전 10:30 | 효자동 성당              | 063-223-3821   |
|         |        | 오후 7:00  |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                |
| 제 주     | 첫째 주일  | 오후 12:00 | 광양 성당               | 064-753-4498   |
|         | 첫째 토요일 | 오후 5:30  | 동문 성당               | 064-757-8866   |
| 미 국     | 첫째 토요일 | 오전 10:30 |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 1-310-380-4647 |
| 호 주     | 둘째 화요일 | 오전 11:30 | 멜버른 한인성당            | 61-422-673-889 |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8년 6월 통권 497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끈뎀두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화 : 02-745-6134 (사무실)

팩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f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당신은 보호자이시나이다.  
당신은 수호자요 방어자이시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12)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